

# 새로운 일상 생활 속 거리 두기

집단방역 편



제 1수칙

#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

1

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고  
전파 속도가 빨라 쉽게 집단 발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 
집단 발생의 예방은 개인 뿐 아니라 집단적 노력이 중요합니다.

2

코로나19의 예방과 조기 차단을 위하여  
공동체의 책임자는 구성원의 동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 
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.

3

이러한 노력은 회사와 같은 공적 공동체 뿐만 아니라  
종교모임, 취미모임 등 사적 공동체에도 꼭 필요합니다.

제 2수칙

## 공동체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

1

구성원의 동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 
공동체의 방역을 관리할 책임자를  
방역관리자로 지정합니다.

2

방역관리자는  
공동체 규모에 따라  
개인이 될 수도 있고,  
적정 인원으로 구성된 팀이  
될 수도 있습니다.

3

방역관리자는  
코로나19 전파로부터  
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,  
주요한 활동 과정에서  
방역관리의 책임을 맡습니다.

4

공동체의 구성원은  
공동체의 방역 관리를 위한  
방역관리자의 요청에  
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.

제 3수칙

#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

1

방역관리자는 우리 공동체의 **밀폐도, 밀집도, 그 밖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고려해 방역지침을 만듭니다.**

2

방역지침은 「집단방역 보조수칙(세부지침)」 중 적합한 지침을 참고하되,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과 보조수칙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.

3

방역관리자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각자가 이를 실천하도록 도와 방역지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4

공동체의 특성상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밀폐된 환경인 경우 자주 손 씻기, 1~2m 거리 두기, 마스크 착용 또는 안면보호대 설치, 유증상자 확인, 자주 환기 등을 강화하여 방역지침을 작성합니다.

5

방역관리자가 없는 가운데 집단의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구성원이 방역관리자의 역할을 대신하여 방역지침을 실천하도록 돕습니다.

6

방역관리자는 방역지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역할 배정과 시설 환경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공동체에 개선을 요구합니다.

## 제 4수칙

#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

1

방역관리자는  
지역의 보건소 담당자의  
연락망을 확보하고  
방역활동에 필요한 협력관계를  
만들어 두어야 합니다.

2

방역관리자는 구성원들의  
호흡기 증상 유무를 체크하고  
체온을 측정하는 등의 활동을  
매일 또는 매번 해야 합니다.  
이 경우 가급적 구성원들의  
일자별 증상 여부를 기록해  
보관하도록 합니다.

3

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이  
확인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 
즉각적으로 집으로 보내  
3~4일 쉬도록 합니다.

고위험군·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 
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 
선별진료소로 안내합니다.

4

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 
동일 부서·학급·장소 등에  
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 
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 
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 
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 
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합니다

제 5수칙

#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

---

**1**

공동체의 책임자는 방역관리자의 활동을 지지하고,  
방역지침의 준수에 필요한 역할 변경, 환경 개선 등의  
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.

---

**2**

공동체의 책임자와 각 구성원들은  
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,  
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.

---

**3**

공동체의 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 
공동체의 방역관리 노력을 평가하고  
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평가 회의를 운영합니다.